

하늘로부터의 기별

막이 열린 에어폰시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로부터의 전화가 날아들어오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지난 8일(1995년 12월) 오후2시 금산 위성지구국에서는 한국통신주식회사가 사내관계자를 비롯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국내 항공사대표와 국제 이동위성통신기기(INMARSAT)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위성지구국을 정식으로 개통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항공위성통신서비스를 위한 자체 지구국을 보유하는 세계 11번째 국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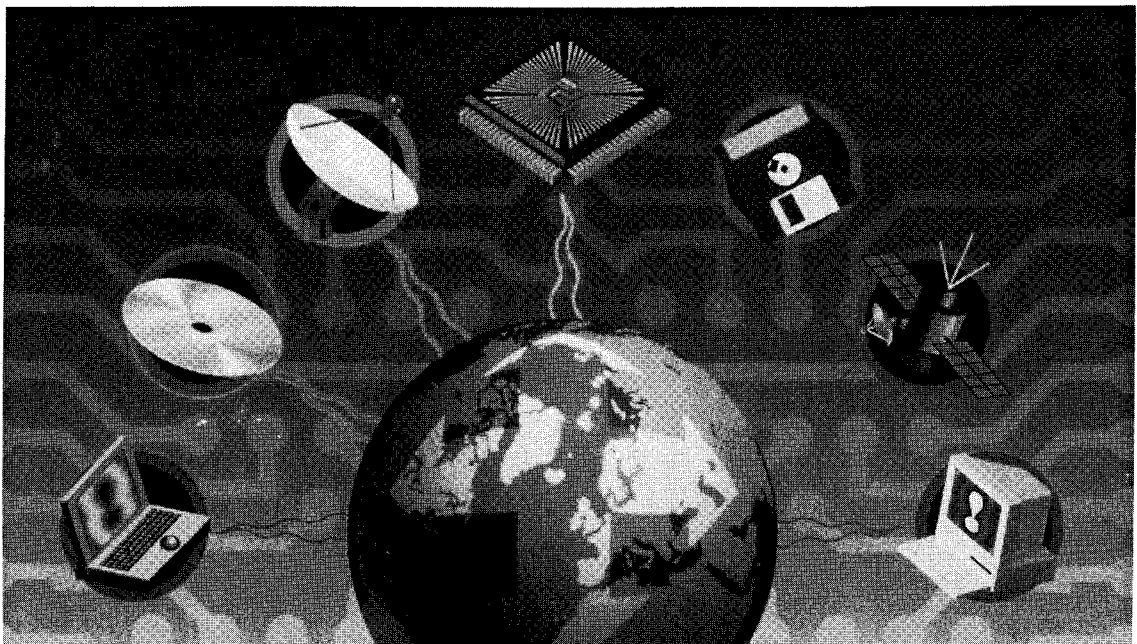
항공위성지구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비행기에 올라타고 여행을 가던 손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세계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즉석에서 기내전화(Air-phone)를 걸 수 있게 해주는 대형안테나 시스템을 뜻한다.

더 즐거워지는 신희여행

그 결과, 예컨대 제트여행기로 하와이나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으로 신희여행을 갈때 즐거운 심정을 즉석에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에게 기내전화로 알릴 수가 있다.



김 정 흠 교수
고 려 대 학 교



“엄마 엄마, 지금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고 있어! 하이얀 구름의 틈바구니 속으로 내려 다 보이는 저 푸른 태평양! 하이얀 색깔의 저 외항선, 정말 한 폭의 구름 같거든! 엄마, Mr.김을 바꾸어줄까.”하고 지껄이는 신혼의 즐거운 목소리, 이제 그것은 꿈이 아니고 하나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1984년 부터 시작된
공중공중전화(空中公衆電話)**

그 기내전화(Airphone, Public Airphone)는 미국의 경우 이미 11년전인 1984년 9월부터 개통이 되었다.

Airfone Inc. 라 불리는 회사가 시작한 이 공중공중전화기는 삼시간에 전세계로 퍼져 지금은 유럽의 여러나라를 위시로 극동지역에서도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 항공공사등 여러항공사가 개통을 하고있다.

미국의 에어폰회사의 경우 사용요금은 처음 3분 동안에는 \$7.50(7불50센트)이고 매 추가 1분당 \$1.25(1불25센트)이다.

통화시간을 20분이라 잡는다면 20분동안의 통화료는 $(7.50 + 17 \times 1.25) = \28.75 (28불75센트)이며 한화로 따져서 약 2만2천원에 불과하다.(10분이라면 약 1만2천5백원)



하늘로부터 지상 사람을 불시에 불러내서 10분간이나 또는 20분간 씩이나 통화를 한 값 치고는 비싼 금액은 아니다.

요금은 모두가 신용카드로 지불하기로 되어있어 월말이 되면 신용

카드회사로부터 청구서가 날아든다.

예컨대 필자의 경우 미국 LA에서 텍사스 오오스틴에 있는 둘째 아들집으로 날아가는 도중 뉴저지에 사는 큰딸에게 건 전화요금은 한달후 한화로 6천2백9십9원으로 적혀서 청구되었다. (필자는 깍쟁이어서 시계를 보면서 3분이 넘지 않도록 걸었기 때문에 처음 3분, 가격인 \$7.50만 물은 것이다. 다만 환율과 수수료가 붙어 상기금액으로 낙착.)

그래서 필자도 이 경험에 의해 당시로서는 ‘공중공중전화를 건 몇 안되는 한국인’이라고 스스로 으시된 때도 있었다.

사실 필자는 간혹가다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남보다

앞장서서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또 으시대는 장난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약 10년전 국제전화가 자동다이얼식으로 바뀔때도 그랬었고 또 약 30년전엔가는 서울역앞 지하철도가 완성되어 개통된 날에는 그 지하철도를 일착은

아니지만 하여튼 개통된 첫날에 걸어보기 위해 일부러 정릉에서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고가서 지하철을 걸어서 왕복(서울역과 대우빌딩사이)해 본 일도 있다.

그때마다 필자는 마음속으로 만



족함을 느끼고 으쓱해지곤 했던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났을 때마다 남보다 먼저 경험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발전될 소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무엇이건 새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남보다 앞장서서 경험하거나 경험하는 사람들을 선진국에서는 이노베이터(innovator, 혁신자)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런 혁신자는 대략 인구의 2.5%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숫자가 1%를 넘어주었으면 한다.

공중전화형에서 좌석마다형으로

그 에어폰은 처음에는 한 여객기

에 한대 또는 두대(일등석용과 일반석용)뿐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우) 좌석 그룹당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예컨대 3사람이 같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셋있는 앞 좌석중 가운데 좌석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용법은 간단해서 신용카드(Visa, Master, Diner's Club, Amex, Bankamerica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용카드)를 카드꽂이에 꽂으면 수화기가 빠져나오게 되어있다.

수화기를 들어 DIAL TONE 이라는 단추를 눌러 '뽕' 하는 소리가 들리면 단추로 눌러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호출신호가 울리게 되고

상대방이 나온다.

전화의 음질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여 시내전화의 음질보다도 더 좋은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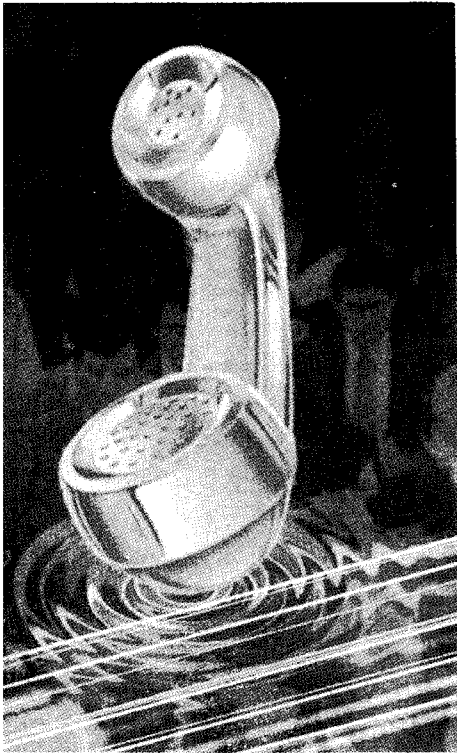
어쨌든 이리하여 우리는 이제 하늘 높이로부터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불시에 불러내어 전화를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기내전화는 우리 한국의 경우 금년말까지는 각종실험을 거친후 내년초부터 정식가동하게 되리라 한다.

그리고 요금은 처음 시작이라 약간 비싸서 1분당 6천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국제전화 포함).

간편한 사용법

사실은 이런 기내전화는 외항선,



즉 국제선의 경우 우리나라의 KAL(대한항공)도 이미 지난 1994년초부터 몇대의 국제선에서 기내 전화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자체의 지구국(직경 20~30m 대 규모의 인공위성용 대형 전파안테나를 뜻함)이 없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등 외국의 지구국을 빌려서 쓰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항공위성통신지구국이 생김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KAL사나 Asiana 항공사는 물론 이태리와 우리 나라를 드나드는 여러 외국항공기들도 금산에 있는 이 지구국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

그리하여 내년초부터는 '하늘로

부터의 기별'을 알리는 이 기내전화는 항공여객자들에게는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버릴 것이 예상된다. 참고삼아 이 비행기에서 지상으로 통화한 경우의 단추 누르는 방법은, DIAL TONE 단추

0 - (국가번호[예 : 미국 1, 일본 81, 한국 82]) - 가입자번호(지역번호 : 국번호 - 전화번호)의 순으로 다이얼하면 된다. 요금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법을 쓰게 된다.

1인 1대의 휴대폰시대도 곧 온다

에어폰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은 온통 이동체 통신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우등고속버스에도 새마을 열차에도 이동체통신인 '고속버스전화', '열차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비행기전화' 마저 생겨난 셈이다.

그 뿐이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즉, 1988년 올림픽때 300~400대가 첫 도입된 이래 휴대폰(handphone)의 보급은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여 이미 200만대도 넘고 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또는 PCN(Personal Communication Network)이라 불리는 간이 휴대폰도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코드리스폰(cordless phone, 가정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초단파 무선전화, 즉 모기(母機)에서 약 20~30m 떨어진

범위내에서 줄이 달리지 않은 자기(子機)를 써서 모기경내로 외부와 전화할 수 있는 초단거리 간이 무선전화 단말기)의 모기와 통신거리를 300~500m로 늘려서 시내로 갖고 나가서도 쓸 수 있게 한 전화시스템을 말한다.

물론 이때는 집안에 있는 본래의 전화기(모기)대신 백화점옥상이라든가 지하상가 요소요소 또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전화박스 상부등에 모기를 장치해서 이 모기경내로 갖고 다니면 PCN 단말기(코드리스폰)로 외부와의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니 이 PCN은 휴대폰과 거의 같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다만 모기와 거의 거리가 최대 500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열차내에서는 전화회화도중 연결이 끊어지기 쉽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대신 요금은 휴대폰보다도 훨씬 싸게 책정할 수가 있다.

이런 PCN은 20세기말 또는 21세기초에는 폭발적으로 그 보급이 늘 것이 예상되며 아마도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휴대폰 또는 간이 휴대폰인 PCN 단말기를 갖고 다니게 되리라 예상된다.

다만 그때가 되어도 비행기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휴대폰이나 PCN은 쓸수가 없어(사용제한), 공공중전화를 쓸 수 밖에 없게 된다.